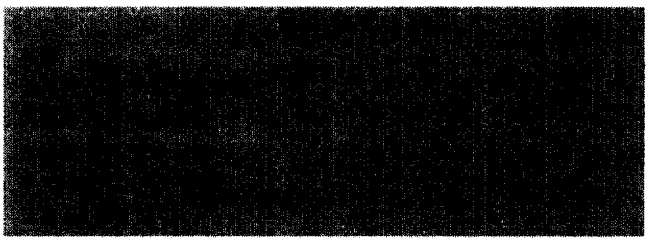
여성의 노동력 참여: 아르헨티나와 한국의 비교연구

이 계우(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서문

세계적으로 여성의 노동력 (경제활동인구) 참여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남성 노동력 참여도가 지속 적이거나 혹은 미미하게 감소하는 추세와는 눈에 띄게 대조된다 (표 1). 여성의 노동력참여도가 증가한 것은 전통적으로 시대변화에 따른 여성 노동력의 수요, 공급의 변화와 연관이 있었다. 이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여성교육수준의 향상, 출산율의 저하, 여성의 결혼연령 지연, 그리고 특히 3 차 산업에서 취업기회가 증가된 점 등이 확인 되어왔다. 특히 경제가 선진국화 되면서 참여도는 증가되어 왔다.

그러나, 여성 근로자가 단기간의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확실한 해답이 없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기간에 여성의 노동력 참여도가 증가하는가,

혹은 감소하는가? 위에서 열거된 바와 같은 여성의 노동력 참여도를 결정하는 장기적 변수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의 경기침체와 구조조정기간에는 많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성 근로자들의 단기간의 행동을 설명할 수가 없다. 한국의 경우에도, 장기적인 노동력 참여도의 결정요인이 여성노동력참여도의 최근의 변화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통계학적으로 분석해보면, 대부분의 계수는 무의미하거나, 서비스 분야의 취업률을 제외하고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일반적으로, 어떻게 여성 근로자가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에 대응하는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가설이 있다. 한 가설은 "낙담 근로자 효과"인데, 이 가설에 따르면 실업률이 높은 기간에는 근로자들이 너무 낙담해서 아예 노동시장을 떠나기로 결심한 뒤, 가장된 혹은 숨은 실업자가 되어서 통계상으로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경제상황이 호전되었을 때, 다시 노동시장에 돌아와서 능동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다른 가설은, "추가 근로자 효과"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경기가 침체되어있는 동안, 가장이 실업자가 되거나 근로소득이 줄었을 때, 다른 가족 구성원이 가족의 소득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이다. 두 가설 중 어느 것이 여성 근로자가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가를 더 적절하게 설명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노동시장정책, 특히 경기침체와 구조조정기간 동안의 여성의 고용정책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은 개인소득이 비슷하게 높은 개발도상국인 아르헨티나와 한국에서, 여성 근로자가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에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비교분석해서 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가설 모두 다 두 나라의 실제 상황을 일관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이 논문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차별의 정도차이가 두 나라의 상황을 더 일관적으로 설명한다고 주장한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저생산성과 고비용으로 인해 발생한,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차별은

아르헨티나보다는 한국에서 더 심했다. 따라서, 한국의 여성 근로자들은 경기침체와 구조조정기간에 직장을 떠난 반면, 아르헨티 나 여성들은 직장에 남아있었다. 오히려 사실상 아르헨티나 여성들이 고실업기간에 더 많이 노동시장에 진출했다. 아르헨티나의 여성 근로자들은 선진국의 경우보다 더 많이 노동시장에 진출했던 것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된다. 첫째, 1990 년대의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경기침체와 구조조정노력에 대해서 살펴본 후, 두 나라에서의 실업문제와 여성노동력 참여도를 살펴본다. 둘째, 두 나라의 상황에 전통적인 가설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두 나라의 경우를 일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가설을 세운다.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해 일반적으로 유용한, 특히 경기 침체기에 유용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노력

브라질과 함께 아르헨티나는 1980 년대의 만성적인 부채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개혁과 경제개혁을 남미의 다른 나라들보다 늦게 시작했다. 1989 년 중반 칼로스 메넴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아르헨티나는 역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었다. 월 평균 인플레이션율은 200 퍼센트에 육박했고, 생산성은 급락했고, 실질 평균임금은 1980 년대 초와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GDP 의 32%에 해당하는 560 억불의 외채는 1 년 이상 상환되지 못했고, 공공부문 적자는 GDP 의 21%를 초과했다. 1990 년과 1991 년 사이에 시작된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아르헨티나의 GDP 는 1994 년까지 년간 8%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비록 실업률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경제는 낮은 인플레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1995 년에는 1994 멕시코 위기(일명 "떼 낄라 여파"라고 부름)의 영향으로 인해, 아르헨티나의 GDP 는 5.1%가 떨어졌고,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역 의 실업률은 20%로 상승했다.

한편, 1997 년 6 월과 12 월 사이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신흥 경제국들은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었다. 다른 지역의 최근 금융위기와 비교했을 때, 그 위기의 정도와 피해는 더욱 심각했다. 이 기간동안, 한국의 주가는 51% 폭락했고, 원화의 가치는 80%가 떨어졌다. 부실채무가 총 은행대출의 50%를 차지했고, 해결비용이 GDP 의 60%로 추정되었다. 1998 년 한국의 GDP 는 6.7%나 감소했다. 전염적인 아시 아 금융위기는 이미 어려움을 겪고있었던 러시아경제를 더욱 악화 시켰다. 또한 남미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세계 경제의 성장전망과 안정성을 위협했다(Lee, 1999).

금융부문에서 시작된 위기는 경제의 실물부문으로 빠르게 퍼져 나갔으며, 노동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1995 년과 1996 년에 안정적이었던 2%의 실업률이 1997 년에는 2.6%로 증가했고, 1998 년에는 6.8%로 증가했으며, 1999 년에는 8.6%로 증가했다. 따라서, 실업자 수는 1996 년 426,000 명에서 1998 년 150 만 명으로 늘었다. 이러한 숫자는 1998 년의 실업률을 850,000 명으로 전망했었던 세계은행의 예측과 비교된다. 이러한 전망과 실제 실업률간의 격차는 금융위기가 노동시장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준다. 이러한 증가추세의 실업률은 파산, 현존하는 회사들의 규모 축소, 그리고 경제의 신생노동력 흡수력의 한계에 기인하였다. 한국경제는 1999 년에 11%에 가까운 높은 회복세를 보였지만, 높은 실업률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았다.

여성의 노동력 참여도

아르헨티나 여성의 노동력 참여도는 역사적으로 전통적인 "역 U"자형 패턴을 따라왔다(Latte, 1977 와 Wanerman,1979). 1980 년대 이후, 청소년(15 세-19 세) 여성 노동력 참여도와 19 세 이상인 여성의 노동력 참여도의 변화는 미미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젊은 여성들이 교육기관에 더 오래 머무르고, 중.장년 층 여성노동자에게는 사회복지

혜택이 더욱 확대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 노동력 참여도는 20 세에서 59 세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했다.

1991 년에서 1993 년 사이의 경제 회복기에 여성의 노동력 참여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40 세 이상 연령층에서 증가를 보였다. 또한, 1993 년과 1995 년 사이의 경기 침체기 동안엔 여성 노동력 참여도, 특히 15 세에서 39 세 사이의 노동력 참여도는,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그림 1). 다시 말해서, 1991 년과 1995 년 사이에는, 여성의 노동력참여도가 38.1%에서 45.8%까지 증가했다. 이렇게 현저한 증가 추세는 1980 년대의 어떤 연령층에서도 보지 못한 증가이다.

1993 년과 1995 년 사이에 여성의 노동력참여도가 가장 크게 증가했는데, 이시기는 특히, 1994 년 멕시코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제가 매우 타격을 입었던 시기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성의 노동력 참여도는 꾸준한 안정세를 보였다(76.4%에서 77.7%로 증가).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노동력 참여도는 모든 교육수준에서 증가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교육수준이 매우 낮은 여성(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초등학교를 중퇴한 여성)들의 노동력참여도가 낮았는데, 이들의 노동력참여도까지 30%이상 증가했다. 반면, 대학졸업여성의 노동력 참여도는 8% 증가했다(81.8%에서 87.7 로 증가). 여성의 노동력참여 도는 모든 가족구성형태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양육할 자녀가 있는 여성의 노동력 참여도(특히 아동연령이 13 세 이상인 경우)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38%). 그 다음 크게 증가한 가족구성형태는 친척이 있는 여성근로자 이다(예를 들면, 며느리가 있는 여성: 35%).

한국 경제 위기 이전(1997 년)과 이후(1998 년)를 비교해보면, 한국의 15 세 이상 인구는 1.5%정도 증가했다 (National Statistics Office,1999). 그러나, 경제활동인구(노동력)는 1% 감소했다. 이 수치는 1996 년과 1997 년 사이에 2%가 증가한 것과 대조를 보인다(표 5). 이 감소세는 여성의 노동력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며(3.7%, 329,000 명), 남성 노동력의 0.9% 증가율이 여성노동력 감소세를 근소하게 상쇄할 뿐이다(121,000 명). 따라서, 총노동력 참여도는 1997 년 62.2%에서, 1998 년

60.7%까지 감소했다. 그리고, 이 감소는 여성근로자에게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49.5%에서 47.0%로 감소, 남성의 노동력참여도 는 75.6%에서 75.2%로 감소).

이러한 현상은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일어난 상황과 큰 대조를 보인다. 여기에서는, 여성의 노동력 참여도가 모든 연령층과 교육수준에서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의 수가 6.5% (585,000 명)나 증가했다. 이에 비해, 남성의 수는 3.4%(141,000 명)만 증가했다. 한국의 노동력 참여도는 여성과 남성의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했다. 그러나, 20-24 세의 여성 가운데서 더욱 크게 감소했다(5.4%). 그 다음으로는, 가장 활발히 육아 출산과 양육을 경험하는 연령층인, 30-39 세 여성들의 참여도가 2.7% 감소했다(그림 2). 교육수준별로 살펴 볼 때, 여성의 노동력 참여도는 모든 교육수준에서 감소했다(남성 참여도도 마찬가지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들에게서 더 큰 감소를 보였다(표 6). 이러한 현상은 아르헨티나의 상황과 대조를 보인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모든 교육수준에서, 특히 저 교육수준에서 여성의 노동력참여도가 증가했다.

노동력 참여도와 실업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여성의 노동력참여도가 증가한 것은 기대하지 않았던 높은 개방실업률 때문이었다. 여성, 남성 모두 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여성 실업률이 4.2 배 증가한 반면(5.8%에서 24.8%), 남성 실업률은 3.6 배 증가했다(4.8%에서 17.3%)(표 4). 그러나, 대부분의 남성실업은 경력취업자들이 경험한 것이고, 여성실업은 신규취업희망자의 실업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1991-95 년 사이의 노동력 참여도의 변화를 실업부문과 취업부문으로 분류해 보면, 여성과 남성사이에서 다른 현상이 나타났다(표 7). 특히 가장인 남성의 노동력참여도에 변화가 없는 이유는 상당한 취업감소와 비슷한 정도로 실업이 증가한 결과이다(Cerrutti,

2000). 1994 년과 1995 년 사이, 총여성의 노동력 참여도는 4.6%포인트 증가했다. 이러한 참여도의 큰 증가는 기존 취업인구가 0.2% 포인트 감소한데 비하여 실업인구가 4.8% 포인트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가정주부사이에서 더 확실히 두드러졌다. 1994 년과 1995 년 사이에 주부의 노동력참여도가 4.8% 포인트 증가한 것은 주부들의 큰 실업률증가 (5.0%포인트)와 그들의 미미한 취업률 감소 (-0.2%포인트) 때문이다. 남성의 노동력 참여도는 완전히 다른 경향을 보여주었는데, 미미하게 1.3% 늘었다. 이 증가는 취업인구의 3.6%포인트 감소와 실업인구의 4.9%포인트 증가에 기인한다.

여성의 노동력참여도가 크게 증가한 것은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소득감소와 가족구성원의 불안한 취업상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여성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Cerrutti, 2000). 표 8 은 부에노스 아이레스 인구 중 최저 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을 보여준다. 1993 년과 1995 년 사이에 저소득층에 속하는 가정에서는 더 많은 구성원(15 세 이상)이 노동시장에 참여했다. 표 8 은 또 1993 년과 1995 년 사이에 저소득층에 속하는 가정의 더 많은 구성원이 실업을 경험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성근로자들의 상당수가 그들의 종사상의 지위를 바꾼 시기에 여성의 노동력참여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상당히 흥미롭다. 표 9 는 1993-1994 년 사이에 남성 근로자들이 1 년 동안, 지속적으로 취업상태에 있는 확률이 1991-92 년에서 1993-94 년 사이에, 66.3%에서 55.8%로 줄었다. 따라서, 남성 근로자들이 1 년 동안 종사상의 지위를 바꾼 확률은 1991-92 년의 18.4%에서 1993-94 년의 23.6%로 늘었고, 가장 큰 종사상의 변화는 취업에서 실업상태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반면, 여성 근로자들이 종사상의 지위를 바꾼 비율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1991-92 년의 26.5%에서 1993-94 년의 27.8%로 증가했다). 그러나, 여성의 종사상의 지위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비노동력(비경제 활동)인구에서 노동력인구에 신규로 가입했다는 것이다.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큰 종사상의 지위변화를 겪은 근로자들은 청소년, 취학아동을 둔 여성,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 그리고 중·저소득층 가정의 여성들이었다. 이들은, 특히, 경기침체와 구조조정기간에 처음으로 노동력에 가입한 여성 근로자들로서 여성의 노동력 참여도를 증가 시켰다.

한국에서는, 경제위기 전(1997)과 후(1998)에, 여성의 노동력참여도가 급격히 감소했는데, 이 감소추세는 낮은 여성 취업률이나 실업률 때문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퇴출한 여성들 때문이었다. 여성의 노동력참여도가 급격히 감소한 것은 먼저 여성 취업률의 감소로 설명되어야 한다(표 10). 여성취업자의 수가 남성취업자의 수 보다 더 빠르게 감소했다(2 년 동안에, 각각 6.9% 대 4.1% 감소, 또는 602,000 명 대 510,000 명 감소). 그 결과 총 취업자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 이 1% 감소했다. 그러나, 여성취업자 감소는 여성실업자 증가로 연결되지 않았다. 그 결과 여성 실업률 증가는 남성 실업률의 증가보다 낮았다. 금융위기전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전체실업률의 증가이다 (2.6%에서 6.8%로 증가). 그러나, 이러한 증가는 여성보다 (2.3%에서 5.6%), 남성사이에서(2.8%에서 7.6%)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총 실업자중 여성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7 년의 36.7%에서 1998 년에는 32.7%로 감소했다(표 10).

여성취업자 수가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실업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증가를 보인 현상은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비노동력)가 남성의 비경제활동인구 보다도 급격히 증가했다는 사실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6.5% 대 3.4%의 차이).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것은 잠재적인 여성실업자(근로조건이 너무 나빠져서 공식적인 실업자로 남지않고, 노동시장 에서 완전히 퇴출한 여성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계에서는 실업자로 계산되지않는 여성) 수의 큰 증가를 반영한다. 이러한 현상이 1998 년 남성의 노동력 참여도 증가와 대조해서, 급격한 여성의 노동력 참여도 감소를 설명해준다. 어떤 연구자들은 실업자중 90%가 잠재적 실업자라고 추정한다(김대일, 2000). 다른 연구자들은, 만약 공식적인 통계상에서 포착되

지않는 잠재적 실업자들을 포함시킨다면, 1998년의 여성실업률이 5.6%가 아닌, 11.4%가 될 것이며,. 또한, 남성의 잠재실업자를 포함한 실업률인 9.5%보다 높을 것이라고 추정한다(김대일, 2000; 문유경, 1999)(표 11).

그러나, 잠재적 실업자가 포함된다면, 금융위기전보다 남성실업자 수가 여성실업자 수 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총 실업자 중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가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1997년의 48.4%에서 1998년의 44.3%로 감소할 것이다(표 11). 1995-1998의 비경제 활동인구정보를 이용해서, 김대일(2000)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

두 나라간 차이의 원인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와 한국의 노동시장의 상황은 대조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경제위기와 구조조정기간동안, 아르헨티나의 여성의 노동력 참여도는 크게 증가했고, 이러한 증가는 신규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근로자 수가 크게 늘었으나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실업자로 남아 있는 여성근로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으로 "추가근로자 가설"이 증명되어지는 것 같다. 이러한 발견은, 여성의 노동력 참여도, 특히 저소득층 출신의 여성과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근로자의 증가에 의해 증명이 된다. 이러한 사례는 멕시코의 상황과 비슷하다. 1980년 말과 1990년 초에, 멕시코의 가정들은 가족 구성원들 중 특히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추가로 참여함으로써, 가정소득의 감소를 막고,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Cortés, 1994; García 와 Oliveira,1994; González de la Rocha,1994).

반면, 한국여성의 노동력 참여도는 크게 감소했고, 이 감소의 주요원인은 노동시장에서 낙담한 여성들이 직장을 찾는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낙담한 근로자 가설"이 증명된 것 같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교육수준과 모든 연령층에서 만연했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 젊은 미혼여성, 출산 및 양육을 경험해야 하는 여성들 사이에서 두드러졌다.

두 나라에서 여성 근로자들이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에 대조적인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했는데, 이 차이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문화나 역사의 차이가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전통적인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한국의 여성들은 가정에서 육아나 가족을 양호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제가 침체되어 직장을 계속 유지하거나 신규취업하기가 힘들면, 쉽게 가정으로 복귀했을 것이다. 또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최종적인 책임은 남성 근로자에게 있다는 전통적 관념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차이에는 사회적 · 경제적 원인도 작용했을 것이다. 종래의 학설을 보면, 보충가설과 대체가설이 경제상황 변화에 여성근로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보충가설

보충가설의 주장에 따르면, 경제위기가 주로 상층근로자(고학력 남성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면, 중간 근로자(저학력 여성근로자)가 노동시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반대로, 경제위기가 저학력 여성근로자와 같은 중간 근로자에게 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 여성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을 떠나도록 부추겨질 것이다(장지영, 2001). 이 보충 가설에 따르면, 여성노동력은 일종의 신축적인 산업보충역으로 경기변동과 친화적으로 행동한다(Humphrey,1988). 즉, 경기가 활발하면 일반적으로 노동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유능한 근로자가 부족해짐에 따라 더 많은 여성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경기가 하강하면, 일반적으로 남성근로자 보다 더 적은 교육을 받은 여성 근로자가 더 심각한 실업을 경험하고, 너무 낙담해 결국 노동시장을 떠나게 된다.

그러나, 이 가설은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경우를 동시에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경제위기는 남성보다 실업률이 훨씬 더

높은 여성 근로자들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표 4). 그러나 여성 근로자들은 노동시장을 떠나기 보다 오히려 더 많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였다. 반면 한국의 경우, 경제 위기는 여성보다 실업률이 훨씬 높은 고학력의 남성 근로자가 경제위기로부터 더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여성 근로자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보다는 노동시장을 떠났다.

사실 한국에서는. 경제위기나 구조조정 기간에 남성보다 더 많은 여성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나도록 요청을 받았다. 산업, 직종, 연령, 교육수준, 및 기업규모에 따른 남녀의 비자발적 실업을 분석한 것을 기반으로 하여, 조순경(1999)은 여성 근로자가 남성 근로자보다 더 많은 비자발적 실업을 경험했다고 결론 지으며, 기업 개편 및 구조조정 기간에 분명한 성차별이 있었음을 주장했다. 1998 년 비자발적 실업자의 절대적인 숫자는 남성근로자가 더 컸지만, 1997 년 실업보험에 가입한 회원 중 1998 년에 비자발적 실업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의 비율(24.7%)은 남성 근로자의 비율(19.4%)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개편 시의 잉여근로자, 권고사직 및 기타 해고 등의 좁은 의미의 비자발적 실업에 속한 근로자들의 경우에서 더 잘 나타난다. 좁은 의미의 비자발적 실업에서 여성의 실업은 16%로 남성의 12%보다 높았다(표 12). 이 사실은 기업 구조조정 당시 여성 근로자가 먼저 그리고 더 많이 잉여근로자로 선별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보충가설의 이론적 핵심은 인적자본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노동시장은 근로자들이 노동을 팔고 그들의 생산성에 따라 임금이 지불되는 하나의 상품시장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근로자의 생산성은 그들의 인적 자본, 즉, 교육, 훈련, 기술과 경험 등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이 이론에 따르면, 경기침체, 경기후퇴 또는 구조조정기간에 남성 근로자보다 더 적은 보수를 받고 일반적으로 교육정도가 낮은 여성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으로부터 밀려나기가 더 쉽다.

그러나 인적자본 이론은, 다음의 회기분석에서 보여지듯이, 실제로 관찰된 1998 년의 남성과 여성의 근로소득의 차이를 1/3 밖에 설명하지 못한다 (약 38% 중 14%).

$$\ln Y = 12.936 + 0.069E^{*} + 0.077T^{*} - 0.001T^{2*} - 0.214G^{*} + e$$
$$(4377.263)\ (321.657)\ (304.476)\ (-133.614)\ (-0.282)$$

$R^2 = 0.566$ d.f.: 383610

이 결과에 따르면, 소득에서 관찰된 편차의 약 57%가 교육성취도의 차이, 현장경험 및 성별에 의해 설명이 된다. 모든 편차의 계수는 높은 확률, 즉 0.1%에서도 통계적 의미가 있다. 여기서 설명이 되지 않는 43%는 아마도 근로자의 타고난 능력, 기업의 규모효과, 노동시간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교육성취도는 소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은 교육수준과 정비례한다. 1997~1998 년 사이에 모든 직업에 걸쳐서, 1 년의 추가 교육이 소득수준을 약 7% 상승시켰다. 이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남성과 여성 근로자 모두 경제적으로 더 향상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비슷하게, 현장훈련이나 경험이 1 년 추가될 때 근로자의 소득은 약 8% 향상되었다. 이는 1 년의 추가 교육이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한 것보다도 더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T^2는 모든 직업에 걸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결론에 따르면, 근로자의 생산성은 인생의 어느 시점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이 결과는 비능률적이고 연령이 높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고용자의 행동에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더 많이 나타난다.

성별 변수 G 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계수이다. 이 회기분석에 따르면 1998 년, 여성은 같은 수준의 교육과 경험을 가진 남성 근로자보다 평균 24%가 낮은 소득을 얻었다. 남성과 여성간에 관찰된 평균 근로소득의 차이가 38%로 나타났지만(Ministry of Labor, 1999), 이

차이중 24% 포인트만 단순히 여성이기 때문에 생긴 근로소득의 차이이다. 나머지 차이는 (1998년에 14%포인트) 신고전주의 경제학적 접근이 주장하듯, 남녀간의 인적자본축적의 차이에서 설명이 된다. 그러나 이 인적자본에서의 차이가 고려 된 후에도, 남녀 근로자들의 평균 소득에 있어서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노동시장에서는 인적자본 이론과 보충가설에 의해 완전히 설명되지는 않는 성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대체 가설

여성 근로자의 행동을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이 있다. 대체가설의 주장에 따르면, 경기침체기간 동안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고용주들은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압력을 느끼고,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남성 근로자들을 더 값싼 임금과 유연성이 있는 여성 근로자들로 대체하여 여성들에게 새로운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Humphrey, 1988). 이 가설은 고전주의 막스 페미니스트 (Beechey, 1979)에 의해 제기된 주장과 비슷하다. 그들은 생산 자본주의 시장체제는 사회 계급적인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계급 불평등은 경기침체 기간동안 고용주로 하여금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남성의 노동력을 여성의 노동력으로 대체하게 한다. 고용주들은 여성이 임금도 낮고 해고하기도 쉽다고 여김으로써, 노동의 예비군으로 여성을 이용한다. 결과적으로, 여성 근로자들의 노동시장으로의 진출과 경기의 움직임은 역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이론상으로, 학자들은 여성의 노동력이 남성의 노동력과 경쟁관계에 있거나 남성근로자를 대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많은 수의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핵심분야에서 고용되기보다는 경제의 새로운 분야 혹은 확장되어가는 기존 분야에서 고용되어 왔다(Hartmann, 1979; Collinson et al, 1990).

게다가, 경험적 분석에 의하면, 어떤 가설도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지는 못한다. 대체가설과는 반대로, 아시아의 경제위기기간에,

다른 분야보다 여성 근로자들이 더 많이 활약하는 분야와 직업에서 여성 고용율은 더 떨어졌고, 오히려 이 분야에서의 남성의 고용율이 증가했다. 이것은 경제위기 동안 오히려 남성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여성 근로자들을 대체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경제위기 전에 여성 근로자들이 비교적 더 많이 고용되었던 판매업, 민간서비스, 공공서비스에서 뿐만 아니라, 전기, 교통, 창고업과 금융산업에서 남성의 고용이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나 늘었다. 반면에 이 분야에서의 여성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나 감소했다 (표 13).

직업별로 살펴보면, 경제위기 전 여성 근로자들이 지배적이었던 분야인 행정, 서비스, 판매 직업에서 남성 근로자들이 늘었던 반면, 위기 동안 이 분야에서의 여성근로자의 수는 급격하게 줄었다 (표 14).

종사상의 지위로는, 여성 정규(종신) 근로자는 크게 감소했으나 (37%에서 32%로), 여성 일용 근로자는 정규 근로자가 감소된 것 만큼 증가했다(16%에서 21%로). 그러나, 남성 근로자들은 위기 전후의 지위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것이 남성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를 대체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처음에 "정규직"으로 있었던 여성 근로자들의 고용상태가 "일용" 근로자의 지위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표 5).

노동시장의 위험·비용 가설

아르헨티나와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을 둘 다 일관성 있게 설명해 주는 더 믿을 만한 가설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있는 노동 시장이 한국의 노동시장보다 더 선진국형 노동시장이라는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여성근로자는 한국보다 노동 시장에서 남성과 차별받지않고 더 긴밀하게 통합된 구성요소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르헨티나의 여성 근로자들은 남성 근로자들이 그래왔듯이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응을 해왔다. 다시 말해서, 아르헨티나의 여성 근로자들은 출산이나 자녀 양육으로 인해 야기되는 저생산성과 높은 이직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여성 근로자들보다 적은 성적 차별대우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 가설의 이론적 바탕은 노동시장의 위험과 비용이 성차별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성적인 고용주들은 특별한 기호나 선호도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다 보면, 불완전한 정보 때문에 위험성만큼 성차별을 하게 된다. 고용주들이 개개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측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근로자들의 그룹 간의 평균생산성 차이는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고용주는 장래에 훈련을 필요로 하는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가장 생산적인 근로자를 찾게 되고, 그 직업에 오래 머무를 가능성이 높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싶어한다(Perlman and Pike, 1994). 대부분의 여성들은 아이들을 가질 것이고, 출산휴가를 받거나 직장을 그만 둘 것이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여성의 이직률이 남성의 이직률보다 일반적으로 더 높다고 생각한다(Banton, 1994). 다시 말하면, 여성은 통계적으로 직장을 일찍 그만 두거나, 출산과 양육으로 인하여 비용이 많이 들어서, 생산성이 낮을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경쟁적인 노동시장에서 남성에 비해서 차별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경제침체나 구조조정 기간동안 고용주들은 여성을 차별하기 쉽고, 여성 근로자 또한 노동시장을 자발적으로 떠나기가 쉽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고용자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가설을 경험적으로 진단한다. 자료는 2000 년 1-2 월에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114 개 개인회사의 인사 과장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집되었다. 표본은 전국적인 통계에서 비교적 여성 근로자들의 비율이 높은 다섯 산업을 동등하게 포함했다. 그리고 이 다섯 산업은 제조업(여성근로자의 비율이 42%를 차지하는 25 개 회사), 도매/소매 무역 (여성근로자가 10%인 17 개 회사), 부동산(여성근로자 9%, 23 곳), 금융(여성근로자 8%, 21 곳), 교통통신 산업(여성근로자 4%, 21 곳)이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여성 근로자의 불연속적인 경력을 보여주는 자료는 이미 일반화 되었다. 전국적인 종합자료에 의하면 여성 근로자가 남성 근로자보다 짧은 경력과 경험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

다(6.8 년 대 4.3 년). 경제위기 전후, 연령 그룹별 노동력 참여율은 연령층 20-24 세와 40-44 세에서 두개의 정점을 갖는 M 자 모양의 곡선을 보여주고, 30-34 세 그룹에서의 저점은 여성 근로자들이 직업에서 이탈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그림 1). 이것은 아르헨티나의 더 완만하고 역으로 된 U 자 모양의 여성 경제활동(노동력)참여 곡선과 대조된다. 즉 아르헨티나의 여성노동력 참여도가 더 선진국형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경제위기 기간동안, 한국의 여성 근로자는 남성 근로자보다 더 높은 이직률을 보인다 (표 5 와 10). 본 설문조사 또한 이것을 확인하고 있다. 남성 근로자는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평균 7.2 년을 일한 반면, 여성 근로자는 단지 평균 4.6 년을 일해왔다. 조 순경의 연구(1999)는 경제위기 시 남성들보다 더 높은 비율의 여성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직했다고 응답했다 (5.1% 대 5.7%). 전국적인 통계자료와는 달리, 본 연구의 표본 설문조사에 따르면, 28.4%의 남성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반면, 단지 20.6%의 여성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직했다.

경제위기 시 여성 근로자들이 직업을 그만 두게 되는 주요 이유로는 결혼, 출산, 양육(68.4%)이었던 반면, 남성 근로자들은 다른 회사로부터 더 좋은 근로조건을 제공받았기 때문이었다. 이 설문조사는 또 보고하기를, 결혼과 출산, 양육을 이유로 여성이 퇴직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회사 보다는 여성 근로자 자신의 선택이었다(93.9%). 그러나, 전체 114 개의 회사들 가운데 66 개의 회사가 결혼, 출산, 양육 때문에 여성근로자를 해고한 경험을 밝혔다. 그 근본적인 이유로는 낮은 생산성(29.8%), 대체할 임시근로자를 찾는어려움(19.4%), 결혼한 여성의 부적합성(9.2%), 그리고 모성보호 비용(3.5%)이 있었다. 나머지는 그 이유를 명기하지 않았지만, 회사들이 여성고용으로 인한 그들의 직업 이탈의 위험성을 예측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여성 근로자들도 그들의 결혼과 출산 후의 생산성에 대한 고용주의 부정적인 시각을 알고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고용주들의 이러한 시각은 아시아의 경제위기 이후 잉여근로자를 가려내는 기준으로 무엇이 가장 자주 사용되었는가라는 고용주에게

한 질문에 대한 대답과 일치하고 있다. 가장 자주 언급되는 기준으로는, 근로자의 자발적 지원(35%), 낮은 생산성(13%), 높은 연령층 (13%)이 있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낮은 생산성을 암시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비자발적인 퇴직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낮은 생산성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조 순경, 1999), 여성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비자발적인 해고를 당한 것은, 고용주가, 여성 근로자들이 모성활동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남성 근로자들보다 비효율적이거나 비용-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인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모든 모성보호 비용이 아르헨티나나 선진국처럼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근로자와 정부와 함께 분담하기보다는, 오로지 고용주만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여성을 채용할 시에 야기 될 위험과 비용을 더욱 절실히 인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 근로자들은 결혼이나 출산 후 그들의 생산성이나 비용에 대한 고용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알고, 결혼이나 출산의 시기가 오면 반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노동시장 위험-비용 가설은 한국 경제위기의 상황에서의 여성의 노동시장을 잘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여성 근로자들은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기간에 이직과 비용 위험 때문에 자발적으로나 비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을 떠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여성 근로자들은 경제침체와 조정기간에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했다. 그리고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들은 한국에서 관찰된 성 차별적인 해고 등을 경험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와 한국 고용주의 시각과 태도에 대한 차이는 몇 가지 사회-경제적인 지표에서도 나타나는데, 특히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표 16). 의회에 진출한 여성의 비율이 아르헨티나가 한국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교훈 및 정책 제안

여성의 노동력 참여율은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기간에 여성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들의 안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아르헨티나와 한국의 노동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특히 경기침체에 빠진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유용한, 교훈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여성을 위한 특별 노동시장 정책: 경기가 침체되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는 여성 근로자들의 문제와 이슈를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둔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이것은 모든 근로자들을 위한 일반적인 접근과는 따로 구별되어야 한다. 경제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여성 근로자들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게다가, 여성 근로자들은 남성 근로자들과 다른 형태의 노동시장을 경험했다. 즉, 잠재적 실업, 실업의 속도, 재고용 시의 종사상의 지위, 고용의 집중도, 비자발적인 이직 사태, 근로소득 등이다. 그러므로, 경기가 침체되거나 위기에 빠졌을 때, 정부는 여성 근로자들의 문제와 이슈를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둔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취하게 될 특별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i) 여성근로자의 상황을 조사하는 것에 특별히 중점을 둔 노동시장 정보 시스템 설치 운영, (ii)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직업을 활발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여성을 위한 특별 직업 상담서비스 제공, (iii) 여성 근로자들이 노동력에서 쉽게 퇴출하지 않도록 여성을 위한 특별고용 서비스, 훈련 프로그램과 설비 제공, (iv) 모성보호에 중점을 둔 보강된 근로감독 시스템 개설 등이다. 특히, 잠재적 실업 근로자들의 특징은 깊이 있게 분석되어야 하며, 정책적인 조치가 알맞게 취해져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잠재적 실업자에 관한 통계자료는 그들의 소득, 교육수준, 연령층, 실업이전의 고용상태, 산업분야와 직업, 노동력으로부터 퇴출하는 과정 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정리 발표해야 한다.

여성 인적자본에의 투자. 남녀 모두의 인적 잠재력을 효율적이고 균등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여성주의자와 정부는 정규교육과 현장훈련 등의 인적자본 투자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를 두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적자본 이론이 통상으로 관찰된 남녀간의 근로소득의 차이를 일부 설명해준다는 점은, 고용주의 남녀 차별이 완전히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며, 어느 정도는 합리적이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한국 고용주들의 행동이 어느 정도 이성적이라는 근거는 인적자본의 축적 정도에 있어서 남녀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남성과 여성 근로자 사이의 교육성취도와 현장실습 경험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모든 직종에서 평균 남성 근로자의 교육성취기간은 12.8 년이었으나, 여성근로자의 경우는 11.8 년이었다. 마찬가지로, 현장 실습과 경험 기간에서도 남성은 6.8 년, 여성은 4.3 년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차이는 전국적인 평균치이므로 개개의 직종과 회사의 크기에 따라서 더 벌어질 가능성이 많다. 여성근로자는 종업원의 수가 적은 직장과 인적자본축적 수준이 낮은 직종에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남녀 모두의 인적 잠재력을 효율적이고 균등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여성주의자와 정부는 교육적 성취도와 현장훈련에 관한 인적자본 투자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를 두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성 보호체제의 변화. 이 연구는 여성 근로자를 고용할 때, 고용주는 모성 기능으로부터 오는 여성 근로자의 직업이탈과 비효율성의 위험을 지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 근로자들이 결혼과 출산 후에도 직업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은 특별히 아동 보육시설과 조기 교육시설을 발전시키고 여성 근로자들이 가사일을 더 쉽게 처리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본 연구는 모성 보호 비용이 남녀 차별화 관행의 독립적인 주요 원인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결혼, 출산 및 양육으로 연결

되어 여성의 직업생활과 생산성에 대하여 고용주의 부정적인 시각을 만들어 내는 데에 기여를 했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정부는 사회보장제도를 수정해서 모성보호와 아동양육의 비용을 고용주, 근로자, 그리고 정부가 균형 있게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 모성 보호는 국민 모두의 가족생활의 향상과 공공재의 하나인 사회번영을 위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비용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동등하게 분담해야 할 것이다. 고용주 홀로 모성보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무거운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평등한 남녀 고용에 부정적인 결과만을 가지고 온다.

둘째, 정부는 모성 보호가 더 현실적일 수 있도록 법적 조항을 만들어 강력한 제재조치와 함께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 법적 조항은 모성보호를 위한 유일한 조치를 일률적으로 다 망라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만을 규정하고, 이것에 기초해서 고용주와 근로자들이 원한다면 협상을 통해 향상된 기준을 채용하기위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틀을 제시해야 한다. 모성보호를 위해 실현가능성이 약한 관대한 조항을 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닐 것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의 모성보호 조항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준수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소기업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비현실적이고 비실용적인 법 조항은 고용주들로 하여금 여성근로자의 고용을 회피하고, 그들을 인사정책에서 불평등하게 다루도록 하는 경향을 만들어왔다. 또한 그러한 법 조항은 고용주들 사이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반 법률적인 문화를 조성해왔다.

셋째, 노동부는 고용주의 법 준수를 감독하는 정규적이고 주기적인 지도-감독체제를 재가동시켜야 한다. 노동부는 1992 년 이래 이 체제를 중단시키고, 단지 근로자들이 신고한 노동법조항 위반사건들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에만 그쳤다.

표 1. 한국과 선진국의 노동력(경제활동인구) 참여율(%)

	한국		일본		호주		독일		미국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985	72.3	41.9	77.9	47.6	76.5	47.0	70.1	41.1	76.3	54.5
1986	72.1	43.1	77.6	47.6	76.6	49.2	10.2	41.4	76.3	55.3
1987	72.5	45.0	77.1	47.6	76.1	50.0	10.0	41.7	76.2	56.0
1988	72.9	45.0	76.9	47.9	76.1	50.7	69.6	42.3	76.2	56.6
1989	73.4	46.6	76.8	48.5	76.2	52.1	69.1	42.7	76.4	57.4
1990	74.0	47.0	77.0	49.1	76.3	53.1	68.4	43.6	76.4	57.5
1991	74.9	47.1	77.4	49.7	75.5	52.9	71.1	47.8	75.8	57.4
1992	75.5	47.3	77.8	49.9	75.0	53.0	10.1	47.6	75.8	57.8
1993	76.0	47.2	77.8	49.6	74.5	52.9	69.5	47.5	75.4	57.9
1994	76.4	47.9	77.6	49.5	74.5	53.6	69.1	47.2	75.1	58.8
1995	76.5	48.3	77.5	49.3	74.7	54.7	68.4	47.2	75.0	58.9
1996	76.1	48.7	77.5	49.3	74.5	55.0	68.0	47.6	74.9	59.3
1997	75.6	49.5	77.6	49.6	74.0	54.8	68.1	48.0	75.0	58.9
1998	75.2	47.0	77.3	49.4	72.9	55.1	67.3	48.6	74.9	59.8
1999	74.4	47.4	76.7	48.9	73.6	55.1	-	-	74.7	60.0

자료제공: 한국 노동부(2000), *2000 Overseas 노동 통계*

표 2. 한국: 여성의 노동력 참여율의 회기분석

독립변수	표준계수	t	sig.
지속성		2.477	.038
서비스부문의 취업률	3.687	2.349	.047
중등교육취학률 (% gross)	-.541	-.900	.394
평균결혼연령	-2.586	-2.104	.069
총출산률	-.084	-.305	.769
Adj. R^2		.545	
Sig.		.032	
Df		12	

종속변수: 여성 노동활동율

그림 1. 아르헨티나: 여성의 연령별 노동력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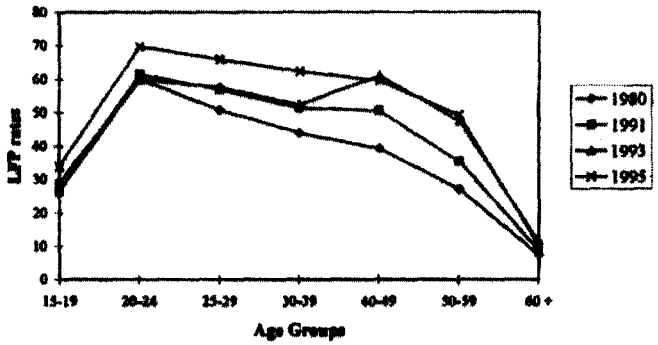


Figure 1. *Female LFP rates by age groups.*

표 3. 아르헨티나: GDP의 변화와 노동시장 지수

년도	연간GDP변화율	평균실질소득[a] (1990=100)	노동력 참여율[b]	개방실업율
1991	9.9	100	55.9	5.2
1992	8.9	108	56.7	6.6
1993	5.9	113	57.9	9.6
1994	7.2	112	57.4	12.9
1995	- 5.1	106	60.7	20.2

[a] 자료제공: Ministerio de Economía y Obras y Servicios Públicos. Secretaría de Programación Económica. 경제보고서, 1998. 아르헨티나 정부

[b]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역. 15 세이상인구. EPH, 1991, 1992, 1993, 1994 October data, 1995 May data.

표 4. 아르헨티나: 여성의 노동력 참여율과 실업률(교육수준과 가정에서의 지위)

개인변수	노동력 참여율			실업률		
	1991	1993	1995	1991	1993	1995
총 남성s[b]	76.4	76.2	77.7	4.8	7.9	17.3
가장	97.8	98.1	97.9	2.5	5.3	11.3
총 여성s[b]	38.1	42.1	45.8	5.8	12.4	24.5
교육수준						
무교육.초등학교중퇴	41.5	46.9	54.1	3.4	12.3	21.7
초등학교졸업	40.4	46.9	52.7	5.0	14.5	28
중등학교졸업	58.5	57.9	63.5	7.2	12.0	24.7
대학교졸업	81.8	85.9	87.7	5.9	3.6	9.4
가정에서의 지위						
남편과 사는 여성	66.6	69.4	72.0	2.9	6.6	23.1
부인+가장+자녀 3세이상	31.5	30.5	37.1	5.8	15.2	24.8
부인+가장+자녀 6세~13세	43.7	45.8	50.4	3.5	8.8	18.5
부인+가장+자녀 13이하	37.3	50.4	51.5	1.6	7.7	21.1
가장,편모	74.0	82.2	79.4	5.3	11.5	10.1
딸인경우	50.9	51.8	57.7	10.8	19.4	34.6
친척인경우	54.2	64.0	73.3	7.9	17.4	27.3

[a] 자료제공: Encuesta Permanente de Hogares (EPH), Metropolitan Area of Buenos Aires. October 1991 and 1993, May 1995

[b] 연령 15 세 이상

[c] 연령 15 – 55 세

표 5. 한국: 노동력 (경제활동인구)

(1000 명)

	1996	1997	1998	연간변동 (%)		
				1995/96	1996/97	1997/98
15세이상인구	34,285	34,842	35,362	621(1.8)	557(1.6)	520(1.5)
남성	16,612	16,888	17,150	-	276(1.7)	262(1.6)
여성	17,674	17,955	18,211	-	281(1.6)	256(1.4)
경제활동인구	21,243	21,662	21,456	390(1.9)	419(2.0)	-206(-1.0)
남성	12,636	12,772	12,893	-	136(1.1)	121(0.9)
여성	8,607	8,891	8,562	-	284(3.3)	-329(-3.7)
경제활동인구	13,043	13,180	13,906	232(1.8)	137(1.1)	726(5.5)
남성	3,976	4,116	4,257	152(4.0)	140(3.5)	141(3.4)
여성	9,067	9,064	9,649	80(0.9)	-3(-0.0)	585(6.5)
경제활동율(%)	(62.0)	(62.2)	(60.7)	(0.1P)	(0.2P)	(-1.5P)
남성	(76.1)	(75.6)	(75.2)	(-0.4P)	(-0.5P)	(-0.4P)
여성	(48.7)	(49.5)	(47.0)	(0.4P)	(0.8P)	(-2.5P)

( )안의 숫자는 변동률 (%); "P"는 %포인트.
자료제공: 통계청. 년간 경제활동인구 조사 *1996-1998*, 한국. 서울

그림 2. 한국: 여성의 연령별 노동력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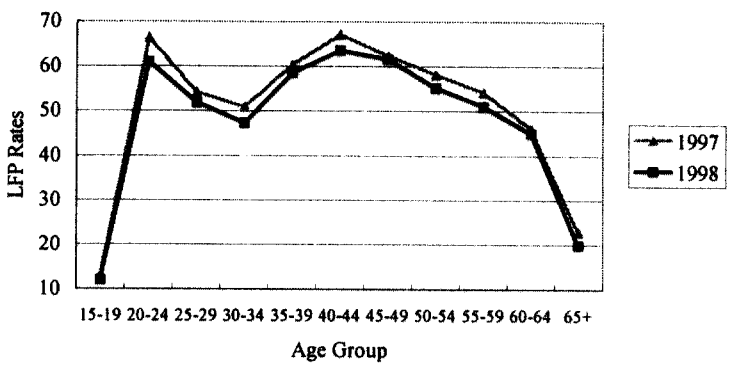


표 6. 한국: 여성의 노동력 참여율 (교육수준별)

	1997	1998	차이
총	49.5	47.0	-2.5
초등학교 및 그이하	46.8	43.9	-2.9
중학교	41.4	40.1	-1.3
고등학교	51.9	48.4	-3.5
전문대학	68.2	65.0	-3.2
대학교와 그이상	61.1	56.7	-4.4

자료제공: Chang, Ji Youn(2001), *경제위기와 여성 노동*, 한국 노동부

표 7. 아르헨티나와 한국: 성별 노동력참여율의 변동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한국	
경제활동참가율변화(%)	1994/1995	1991/95	1996/1997	1997/98
총경제활동인구	3.3	4.8	2.0	-1.0
취업자	-	-	1.4	-5.2
실업자	-	-	0.6	4.2
여성	4.6	7.7.	3.3	-3.7
취업자	-0.2	-1.3	2.4	-6.8
실업자	4.8	9.0	0.8	3.1
기혼여성	4.8	9.6	-	-
취업자	-0.2	0.2.	-	-
실업자	5.0	9.4	-	-
남성	1.3	1.3	1.1	0.9
취업자	-3.6	-8.1	0.6	-4.0
실업자	4.9	9.4	0.5	4.9
기혼남성	0.1	0.1	-	-
취업자	-4.0	-8.6	-	-
실업자	4.1	8.7	-	-

표 8. 아르헨티나: 소득수준별 가족 구성원의 종사상 지위

	가구당 소득 분류			
	하위 20%	30% -50%	60% - 80%	90% - 100%
15세 이상의 가족구성원 중 경제활동 가능 구성원의 수				
1991	0.39	0.39	0.59	0.75
1993	0.42	0.45	0.59	0.75
1995	0.54	0.51	0.59	0.70
15세 이상의 가족구성원 중 취업상태에 있는 구성원의 수				
1991	0.35	0.37	0.57	0.74
1993	0.34	0.40	0.56	0.72
1995	0.34	0.38	0.52	0.66
15세 이상의 가족구성원 중 실업상태에 있는 구성원의 수				
1991	0.05	0.02	0.01	0.01
1993	0.09	0.05	0.03	0.03
1995	0.20	0.13	0.07	0.04

[a] 자료제공: Encuesta Permanente de Hogares (EPH), 부에노스 아이레스. 1991 년 10 월, 1993 년, 1995 년 5 월

표 9. 아르헨티나: 12개월 간 종사상의 지위

	1991 - 92		1992 - 93		1993 - 94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같은 지위 유지	**81.6**	**73.5**	**78.0**	**71.6**	**76.4**	**72.2**
항상 취업상태	66.3	24.4	60.9	25.1	58.8	23.9
항상 경제활동가능상태	15.2	49.1	16.7	46.2	16.8	47.8
항상 실업상태	0.2	0.00	0.4	0.3	0.8	0.5
지위의 변화	**18.4**	**26.5**	**22.0**	**28.4**	**23.6**	**27.8**
취업상태에서 다른 지위로	9.2	8.8	9.8	10.2	11	11.5
실업상태에서 다른 지위로	2.3	1.8	4.9	2.3	6.0	4.3
비경제활동에서 다른 지위로	6.9	15.9	7.3	15.9	6.6	12.0
총합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 자료제공: Encuesta Permanente de Hogares 를 이용해 구성한 자료. (1991 년 10 월 ~ 1994 년 5 월)

표 10. 한국: 취업과 실업

(단위: 천명/%)

	1996	1997	1998	1996/97	1997/98
	천명	천명	천명	변동량, (변동율)	변동량, (변동율)
취업자	20,817	21,106	19,994	284(1.4)	-1112(-5.3)
남성	12,345	12,420	11,910	79(0.6)	-510(-4.1)
여성	8,472	8,686	8,084	205(2.4)	-602(-6.9)
실업자	426	556	1,461	130(30.5)	905(162.8)
남성	291	352	983	61(21.0)	631(179.3)
여성	135	204	478	69(51.1)	274(134.3)
실업률(%)	(2.0)	(2.6)	(6.8)	(0.5P)	(4.2P)
남성	(2.3)	(2.8)	(7.6)	(05.P)	(4.8P)
여성	(1.6)	(2.3)	(5.6)	(0.7P)	(3.3P)
여성의 비율	(31.7)	(36.7)	(32.7)	(5.0p)	(-4.0p)

괄호 안의 숫자는 %의 변화이며, "P"는 % 포인트를 나타낸다..
자료제공: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관한 연례보고서, 1996-1998, 서울, 한국.

표 11. 한국: 잠재적 실업자를 포함한 전체 실업자(율)

	총	남성	여성	총	남성	여성	여성
		(1000명)			(%)		(%)
1996	**628**	362	266	**(3.0)**	(2.9)	(3.1)	**(42.4)**
1997	**903**	466	437	**(4.2)**	(3.6)	(4.9)	**(48.4)**
1998	**2,197**	1,223	974	**(10.2)**	(9.5)	(11.4)	**(44.3)**

자료제공: T. Kim and Y. Moon (1999)

표 12. 한국: 비자발적 실업

(단위: 천명)

	총	남성	여성
총 보험 가입자 (1997)	4,280.0	3,134.0	1,146.0
총 비자발적 실업 (1998)	**891.3**	**608.3**	**283.0**
1997년이래 변동율 (%)	**(145.6)**	**(165.3)**	**(111.9)**
1997년 총보험가입자 대비율(%)	**(20.8)**	**(19.4)**	**(24.7)**
총 비자발적 실업 결혼, 출산, 육아 포함 (1998)	935.6	614.0	321.2
1997년 총보험가입자 대비율 (%)	(21.9)	(19.6)	(28.0)
해고 (1998)	**572.2**	**389.1**	**183.1**
1997년 총보험가입자 대비율(%)	**(13.4)**	**(12.4)**	**(16.0)**
-잉여노동	123.8	84.6	39.2
(%)	(2.9)	(2.7)	(3.4)
-퇴직권고	260.6	180.5	380.1
(%)	(6.1)	(5.8)	(7.0)
-기타	187.8	124.0	63.8
(%)	(4.4)	(4.0)	(5.6)

자료제공: S. Cho (1999).

표 13. 한국: 산업별 고용 근로자

	1997/1998 간의 변동					
	총		남성		여성	
	천명	변동율 (%)	천명	변동율 (%)	천명	변동율 (%)
총	-1,112	-5.3	-510	-4.1	-602	-6.9
농림수산업.	95	4.0	63	5.1	31	2.7
광산업, 제조업.	-589	-13.1	-335	-11.5	-253	-15.8
-제조업	-584	-13.0	-332	-11.5	-252	-15.8
사회간접자본, 기타 서비스	-618	-4.3	-238	-2.9	-381	-6.4
-건설업	-426	-21.3	-352	-19.7	-74	-34.1
-도소매 음식점, 호텔	-234	-4.0	-34	-1.2	-201	-6.6
-전기, 교통 창고업, 금융업	-8	-0.4	32	2.3	-41	-7.1
-경영, 민간 및 공공 서비스, 기타	49	1.1	113	4.9	-66	-3.2

자료제공: 통계청 (1999).

표 14. 한국: 직업별 고용 근로자

	1997/1998 간의 변동					
	총		남성		여성	
	천명	변동율 (%)	천명	변동율 (%)	천명	변동율 (%)
총	**-1,112**	**-5.3**	**-510**	**-4.1**	**-602**	**-6.9**
전문직, 기술자	48	1.3	32	1.2	15	1.4
행정직, 사무원	-154	-6.0	78	6.5	-232	-16.9
서비스 및 판매 근로자	-132	-2.7	24	1.3	-156	-5.2
숙련된 농업 및 수산업 근로자	91	4.0	62	5.2	30	2.8
기능공, 공장 및 기계 조작자, 기초공	-965	-12.5	-706	-12.9	-258	-11.6

자료제공: 통계청 (1999).

표 15. 한국: 근로자의 종사상의 지위 (%)

	1997. 12			1998. 12		
	총	남성	여성	총	남성	여성
A. 경제활동인구	100	100	100	100	100	100
- 취업	97	97	97	92	91	93
- 실업	3	3	3	8	9	7
B. 취업	100	100	100	100	100	100
- 임금 근로자	64	65	61	62	63	60
- 비임금 근로자	36	35	39	38	37	40
C. 임금근로자	100	100	100	100	100	100
- 정규직	52	63	37	51	63	32
- 임시직	34	24	47	33	24	47
- 일용직	14	13	16	16	13	21
D. 비임금근로자	100	100	100	100	100	100
- 자영업자	77	96	52	77	96	51
- 가업종사자	23	4	48	23	4	49
E. 실업자	100	100	100	100	100	100
- 경력실직자	58	63	50	75	77	72
- 신규취업희망자	42	37	50	25	23	28

자료제공: 통계청 (1999b).

표 16.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 (2001 년 10 월 12 일 현재)

	국회의원			
	선거일	총의원수	여성의수	여성비율 (%)
한국	04/ 2000	273	16	5.9
아르헨티나	10/ 2001	257	79	30.7

자료제공: *국회의 여성* (http://www.ipu.org/wmn-e/arc/classif121001.htm)

Reference

김대일. (2000). 「최근의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기간의 변화」. 김대일, 안주엽, 양준모 (공저) 「경제위기와 실업구조 변화」.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김태홍, 문유경. (1999). 「여성의 실업구조와 실업정책의 개선방안」. 『여성연구』. 겨울호 통권 57 호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장지영 (2001) 「경제위기와 여성노동」.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조순경. (1999). 「여성해고와 실업대책 정책대안」. 대통령여성특별위원회.

Banton, Michael (1994) *Discrimination*, Open University, Buckingham.

Beechy, Veronica (1978) "Women and Production: A Critical Analysis of Some Sociological Theories of Women's Work", in Annette Kuhn and Ann Marie Wolpe (eds.) *Feminism and Materialism: Women and Modes of Production*, Routledge, London.

Cerrutti, Marcela(2000), "Economic Reform, Structural Adjustment and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in Buenos Aires, Argentina", *World Development Vol. 28, No. 5*

Collinson, David L., David Knights and Margaret Collinson (1990) *Managing to Discriminate*. Routledge, London.

Cortes, R.(1994), "Marginacion de la fuerza de trabajo femenina? Estructura de ocupaciones 1980-1993". In H. Birgin(ed.), *Acción Pública y Sociedad, Las Mujeres en el Cambio Estructural,* H. CEASEL/ Feminaria, Buenos Aires.

Garcia, B. and Oliveira de O. (1994) *Trabajo femenino y vida familiar en México*. El Colegio de México, Mexico City.

Gonzalez de la Rocha, M. (1994) *The resources of poverty. Women and survival in a Mexican city.* Oxford: Black Well

Hartmann, Heidi I. (1979), "Capitalism, Patriarchy and Job Segregation by Sex", in Sillah R. Eisenstein (ed.). *Capitalist Patriarchy*, Monthly Review, New York.

Humphrey, J. (1988) "Women's Employment in Restructuring America: the

changing experience of women in three recessions", in Jill Rubery (ed.) *Women and Recession*, Routledge, London

KLI(2000), 2000 Overseas Labor Statistics, The Korea Labor Institute, Seoul, Korea.

Lee, Kye Woo (1999)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APEC", *The Journal of APEC Studies*, Vol. 1, No.1.

Ministry of Labor (1999) *1998 Survey Report on Wage Structure*, Republic of Korea, Seoul.

National Statistics Office (1998) *1997 Annual Report o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Republic of Korea. Seoul.

National Statistics Office (1999) *1998 Annual Report o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Republic of Korea. Seoul.

National Statistics Office (1999b) *Monthly Economic Activity Survey*, Republic of Korea. Seoul.

Perlman, Richard and Maureen Pike (1994) *Sex Discrimination in the Labour Market: the Case for Comparable Wo*rth. Manchester University Press, Manchester.

Recchini de Lattes, Z. (1980), *La participación económica posguerra hasta 1970. Cuadernos del CENEP*, No. 11, Centro de Estudios de Población(CENEP), Buenos Aires.

Wainerman C. (1979) *Educación, Familia y Participación Económica Femenina. Cuadernos del CENEP* No. 19, Centro de Estudios de Población (CENEP), Buenos Aires.

Abstract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in Argentina and Korea

Lee, Kye-Woo

El estudio tiene como objetivo responder a la siguiente pregunta: cómo se comportan las mujeres trabajadoras durante las recesiones económicas y los ajustes estructurales? La respuesta a esta pregunta está basada en el análisis comparativo de dos países en desarrollo de altos ingresos, por ejemplo, Argentina y Corea. En la literatura sobre la temática se pueden encontrar dos posibles hipótesis con respecto al comportamiento de las mujeres trabajadoras durante los períodos de recesiones económicas y ajustes estructurales. Sin embargo, ninguna de estas hipótesis pueden explicar consistentemente la realidad particular de estos dos países. Este estudio sostiene que el tema del grado de discriminación hacia las mujeres trabajadoras en Argentina y Corea ofrece una explicación más consistente a las realidades de los dos países, a través del análisis de las experiencias del mercado laboral femenino en Argentina y en Corea. Para finalizar, el estudio sugiere un número de recomendaciones de políticas para los países en desarrollo en general, haciendo referencia en particular a los períodos de recesión económica.

Key words : 노동시장(Labor Market), 여성노동력(Female Labor Force), 구조조정(Structural Adjustment), 성차별(Gender Discrimination),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s development), 아시아와 남미(Asia and South America)